

20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이유

-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타자('소통이 안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를 배움과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타자와의 만남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와의 해후가 가져다주는 가능성이다.

- 레비나스가 주장한 '타자'의 개념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등 대화 자체가 어려운 국가들 간의 관계성이 바로 떠오르고, 국내 사회를 전망해 보면 인터넷에 의한 혐우주화가 진행됨으로써 연봉이나, 직업, 정치적 경향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그룹마다 원리주의적인 순수 배양이 진척되어 '대화 불가'라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